

가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5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239천km ²	G D P	138 억 달러
인구	23.80 백만명	1 인 당 G D P	580 달러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Cedi (GHC)
대외정책	친서방중립	환 율(달 러 당)	1.41

-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가나는 한반도의 약 1.1배에 달하는 국토와 23.8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부르키나파소(북), 토고(동), 코트디부아르(서)와 접경하고 있음.
- 세계 최대의 코코아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금 생산국으로 광물, 삼림, 수산자원 또한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 등 1차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1인당 국민소득이 580달러에 불과한 저소득 국가로 남아있음.
- 정치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現 밀스(John Atta Mills) 정권의 적극적인 경제개혁 추진 노력에 힘입어 국제사회로부터 아프리카 경제개혁의 모델 국가로 지목받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e
경제성장률	5.9	6.4	6.3	7.3	4.0
재정수지/GDP	-3.0	-7.5	-9.1	-14.5	-10.3
소비자물가상승률	15.1	10.9	10.7	16.5	18.2

자료: IMF, EIU

□ 2009년 경제성장 둔화

- 2005~07년 가나 경제는 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중심으로 한 광업 부문의 성장, 코코아의 수출 호조, 원조자금을 활용한 도로, 항만 등 경제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연평균 5.9%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8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의 호조세, 통신,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의 견실한 성장,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7.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FDI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은 4.0%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2010년에는 농업 및 서비스 산업의 호조세와 주요 수출품목인 금 가격의 상승 등으로 가나 경제는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동국 정부의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 보조금 지급, 과중한 외채 부담 등으로 인해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08년에는 1월에 개최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및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14.5%까지 확대되었음.

- 그러나 2009년에는 세수기반 확충 노력으로 10.3%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금, 코코아 등 가나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의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은 8%대로 축소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수입관세 철폐,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2008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5%를 기록하였음.
-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18.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하반기 가나정부의 긴축정책,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의 안정세 등으로 연말 기준으로는 16%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정부의 긴축정책 강화, 양호한 농작물 작황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안정세, 가나 세디(Cedi)화의 안정세 등에 힘입어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예전 수준인 10%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구조 · 정책

□ 1차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가나는 농업 부문이 총 GDP의 40% 이상, 총 노동인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25% 수준에 불과하여 가전제품, 자동차 등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개도국형 시장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수출구조의 경우, 광물자원이 총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금 수출이 90%를 차지하는 등 1차 산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시세 및 기후변화 등에 따라 국가경제가 크게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가나는 1957년 독립 당시만 해도 전세계 개발도상국 중 도로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였으나, 1970년대부터 도로, 철도, 통신시스템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 인프라가 낙후되면서 도로 교통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경제 활동이 지속되어 왔음.
- 2009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동국은 전체 177개국 중 152위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도로, 식수, 보건 등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열악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아 왔음.
- 지난 2008년 1월 가나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앞두고 도로 개선 등 여러 가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커다란 개선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가나는 아프리카 제 2위(1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 생산국임. 금 생산은 지질적으로 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6대 Belt 지역 (Asanti, Sefwi, Kibi-Wineba, Bui, Bole, Wa-Lawra)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금 이외에도 다이아몬드, 보크사이트, 망간, 철광석 등의 부존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채굴작업이 최근 활발히 추진 중에 있음.

□ 2011년경 석유 생산 개시

- 2007년 6월, 영국의 석유회사인 Tullow Oil社가 가나 Jubilee 해역에서 해상유전을 발견, 약 10~18억 배럴의 추정 매장량을 발표하면서 동국의 석유 생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 Jubilee 해상유전은 2011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1년 일산 기준 원유 생산량은 약 12만 배럴(2008년 기준 원유생산량 사우디아라비아 1,084만 배럴/일, 나이지리아 217만 배럴/일)에

달할 것으로 파악됨.

□ 아프리카 국가중 양호한 기업환경

- 2009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지표(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가나는 총 183개국 중 92위를, 아프리카 국가 46개국 중 7위의 비교적 양호한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2006~07년에는 세계 Top 10 Best Reformer의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였음.

□ IMF의 지원 아래 착실한 구조조정 시행

- 가나는 지난 2003년 4월, IMF와 3개년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원조협정을 체결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은행 등 공공분야의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왔으며, IMF는 가나가 그동안 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왔음.
- 지난 2009년 7월에는 IMF와 PRGF 원조협정을 새로이 체결(6억 달러 규모)한 바 있으며, IMF의 권고에 따라 향후 3년간 재정 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

□ 2010~13년, 중기개발계획(MTDP) 시행

- 2002년 이후 가나정부는 IMF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원조공여국과 협의를 거쳐 가나빈곤 감축전략(Ghana Poverty Reduction Strategy: GPRS)을 추진하여 왔음.
- GPRS I(2003~05년), GPRS II(2006~09년)에 이어 가나정부는 2010~13년 신경제개발 계획인 중기개발계획(Medium Term Development Plan: MTDP)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 GPRS I이 거시경제의 안정과 빈곤감축 프로그램, GPRS II가 부의 창출 및 빈곤 감축 지원을 위한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다면, MTDP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상황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감축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 및 중소득국가(Middle Income Status)의 지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MTDP는 다음의 7개 분야에 대한 발전계획을 포괄하고 있음.

- (1) 거시경제의 안정
- (2) 인프라 개발의 확대
- (3) 농업의 현대화 및 산업발전의 가속화
- (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
- (5) 인적자원의 개발 확대
- (6)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 (7) 빈곤의 감축 및 소득불균형의 해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e
경 상 수 지	-1,105	-1,043	-2,151	-3,543	-2,176
경 상 수 지 / G D P	-10.4	-8.7	-13.9	-24.0	-15.8
상 품 수 지	-2,545	-3,027	-3,894	-4,999	-4,357
수 출	2,802	3,727	4,172	5,270	5,690
수 입	5,347	6,754	8,066	10,269	10,047
외 환 보 유 액	1,752	2,089	2,831	2,000	2,023
총 외 채 잔 액	6,743	3,197	4,479	5,056	5,631
총 외 채 잔 액 / GDP	63.7	26.6	28.9	34.3	40.8
D . S . R .	7.2	5.0	3.1	2.9	2.8

자료: IMF, EIU

□ 경상수지 적자기조

- 금, 코코아 등 주력 수출상품의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가뭄과 홍수에 따른 작황 악화, 그동안의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輸入) 부담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2008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24%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년 들어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수입(輸入) 부담이 다소 완화되며 2009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5.8%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는 주력 수출품인 금, 코코아의 국제가격이 상승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경상수지 적자폭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분석됨.

□ 점진적 외채구조 개선

- 총 외채규모는 2004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 80%에 육박하는 등 외채 부담이 심각하였으나, 2004년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Completion Point 달성 및 2006년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프로그램에 의해 대규모 채무탕감을 받은 이래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능력을 유지해오고 있음.
- D.S.R.도 2005년 7.2%에서 2008년 2.9%까지 개선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사회안정

□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 안정세 유지

- 가나는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981년 로링스(Rawlings) 정권 출범까지 다섯 차례의 쿠데타와 아홉 차례의 정권교체를 이루는 등 정치적 혼란을 거듭해왔음.
- 그러나 2000년 12월 대선에서 신애국당(New Patriotic Party: NPP)의 쿠푸어(Kufuor) 전 대통령이 국민민주회의(National Democratic Congress: NDC)의 밀스(Mills)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민주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음. 2004년 12월에 실시된 대선에서도 쿠푸어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지난 8년간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3선을 금지하는 헌법에 의해 2008년 12월 퇴임하게 되었음.

□ 부정부패 척결 수사 등 여야간 정치적 갈등 우려

- 2008년 12월 대선에서 NDC의 밀스(Mills) 후보가 NPP의 아도(Addo)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물리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총선에서도 여당인 NDC가 총 230석 중 115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8년간 유지되어 온 NPP 지배체제가 종식되었음.
- 향후 가나의 정치적 향방은 여당인 NDC가 NPP에 얼마만큼의 권력을 투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임. 현재 NDC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의제 하에 NPP 소속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 정치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 現 밀스 대통령은 당내 및 정부 기관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NPP에 의해 지연되었던 예산안을 승인하며 빈곤층 지원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농업 부문의 다변화,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 선거공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부족 간 마찰 등 사회 불안 요인 잠재

- 2008년 12월 선거 기간 중 NDC와 NPP의 지지자들이 각자의 승리를 주장하며 일부 도시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으나, 선거결과가 확정된 이후부터는 정치집단간 마찰은 다소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부족간 마찰은 내란 및 전쟁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따금 발생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사회불안 요인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국제관계

□ 서방국가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

- 로링스 대통령 집권기인 8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정책으로 전환한 가나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조 및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왔음. 쿠푸어 전 대통령 집

권기인 2006년에는 5억 달러 규모의 원조자금을 공여 받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왔음.

- 한편, 최근에는 인프라 건설 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대규모 무상차관을 도입하면서, 대외관계의 중심이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역 내 외교적 영향력 유지

- 쿠푸어 전 대통령이 2003~04년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의 의장을 역임하는 등 가나는 나이지리아와 더불어 서부아프리카 경제, 외교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변국인 토고, 베냉, 코트디부아르 등과의 정치·경제 교류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쿠푸어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AU)의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AU에서도 중추적인 입지를 강화해 왔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기 관	종 전 등 급	현 행 등 급
OECD	6등급(2008. 10)	6등급(2009. 10)
S&P	B+(2008.6)	B+(2009.3)
Fitch	B+(2008.2)	B+(2009.3)
ICRG	98/140(2009. 3)	84/140(2010. 2)
I. I.	93/177(2009. 3)	9/177(2009. 9)
Euromoney	89/186(2009. 9)	94/186(2010. 3)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2.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 개선

- 2004년 7월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Completion Point 달성 및 2006년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프로그램에 의해 대규모 채무탕감을 받은 이래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IMF 및 세계은행의 지원 아래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를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음.
- 이 같은 대규모 채무 탕감과 대외원조의 지속적인 유입이 견실한 경제 성장과 맞물려, 동국의 외채상환부담은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V. 종합의견

- 세계 최대의 코코아 생산국이자 아프리카 2위의 금 생산국인 가나는 농업부문의 호조세, 풍부한 광물자원, 통신,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의 견실한 성장,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2005~08년간 연평균 6.5%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농업 및 서비스 산업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FDI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4%로 둔화되었으며,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 적자기조도 지속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현 밀스(John Atta Mills) 대통령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나, 신애국당(NPP)과 국민민주회의(NDC) 간의 정치적 갈등,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1차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로 인한 낮은 국민소득은 잠재적 불안요소로 남아있음.

조사역 반형섭(☎02-3779-6656)
E-mail : hsbhan@koreaexim.go.kr